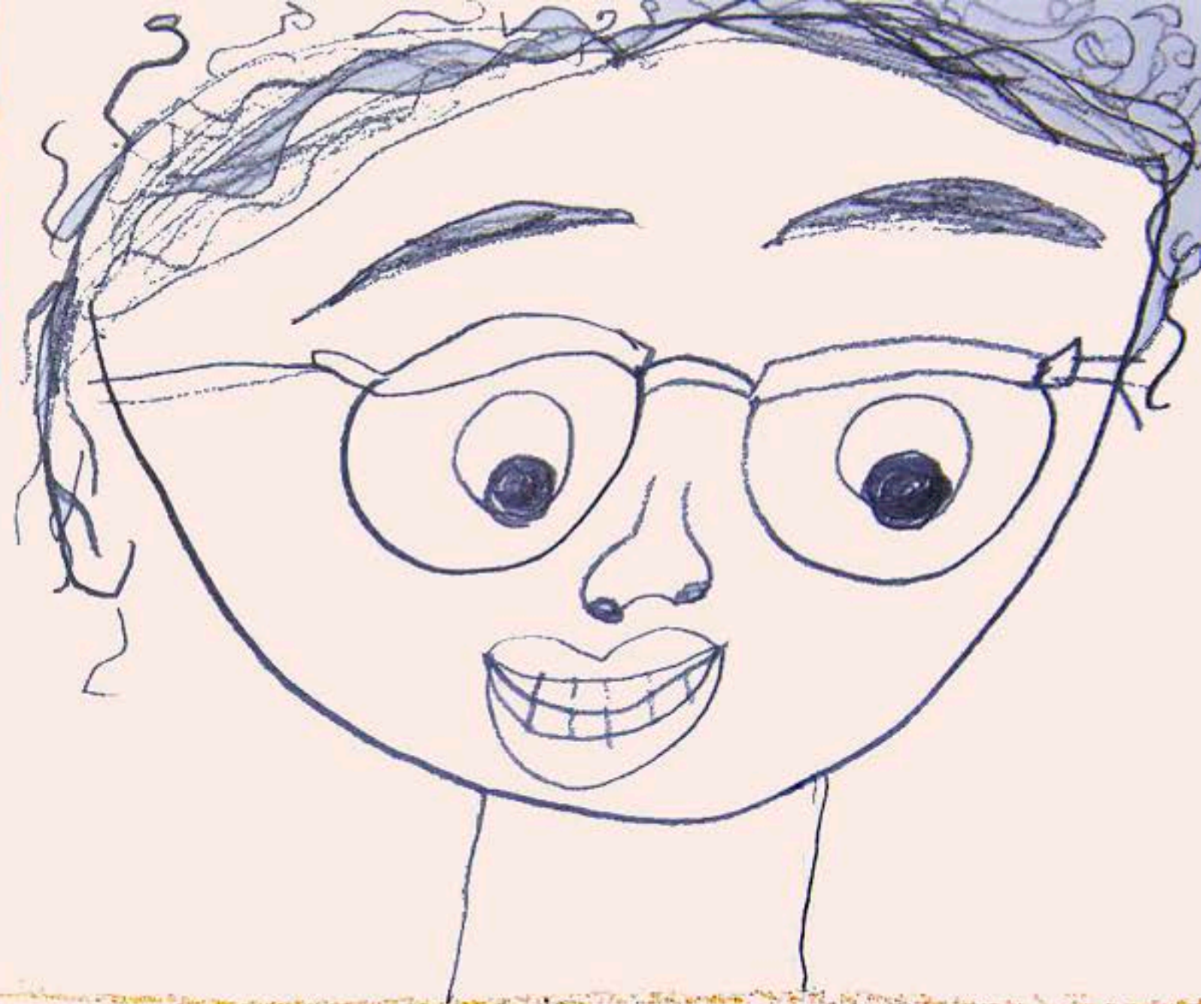




글과 그림 주다솔



선생님이 팔을 책상에 내리다가 팔꿈치로 토마토를 꼭 눌러서
토마토가 펑 터져 버렸대.



우연히 이것을 본 개미 토토는 토마토를 먹으러 온거야.
토마토를 맛있게 먹은 토토는 창문으로 나가서 편의점으로 갔어.





편의점 문 앞에서 한 남자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
마시멜로를 떨어트리는 걸 봤어.
토토는 친구 개미들을 불러모아
마시멜로를 갖고 하얗고 푹신푹신한 차를 만들었어.




토토는 개미들끼리 그 차를 타고
골목을 지나서...

횡단보도를 건너서...

굴 안으로...쑹~!

기다리고 있던 다른 개미들과 함께... 토토는
다 함께 마시멜로를 맛있게 먹었다.





<발명왕 개미>를 쓰고 나서

<작가처럼 글하자> 학원 구유선 선생님이 토마토를 사오셨다. 이 토마토를 보는 순간, 구유선 선생님을 꿀탕을 먹고 싶었다. 하지만 실제로 장난을 칠수는 없고, 상상만 했다. 이 상상을 이야기로 담아낸 것이다. 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작품이 되어 나오니 뿌듯하다.

구유선